

안동시, 3.6억 들여 ‘글로벌 백신·바이오 허브’로 도약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종 선정
‘안동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건설
풍산읍 노리 일대 132만㎡ 부지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신규 국가 산업단지에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바이오 허브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등 총 14곳을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지역공약으로 이번 신규 국가산단 선정을 통해, 국정 과제인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선도 해나갈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2030년까지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 132만㎡(약40만평) 부지에 3879억여 원을 투입해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한다. 백신·HEMP 바이오의약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방시대를 선도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울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합동설명회 및 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최종 선정에 함께 기뻐하고 있다.

보지 현장실사에서 ▲연관 기업체의 높은 입주 수요도와 경제적 파급효과 ▲바이오산업 분야 상대적 강점 ▲중심적 지리와 교통 접근성의 우수성 등을 강조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국가산단 신청에 앞서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172개 기업이 산업용지 면적 대비 227.2%(91만㎡)의 부지에 입주를 희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76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4.28조원이 투자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8.62조 원, 3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안동이 바이오·백신산업 분야에서 구축해온 산·학·연·관의 시너지도 국

대화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동식물세포 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 실증지원센터 등 경북바이오1,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높은 핵심업종 특화도를 바탕으로 바이오 기업 및 기관들의 클러스터화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의료용 헴프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도 더욱 가속화된다.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은 중부 내륙권의 중심지 및 광역접근성 등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고속도로(서안동IC)가인접하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을 통해 ▲물자와 인력수급이 용이하다. 앞으로, 경북

도청 신도시, 대구경북신공항 등 배후도시와의 지원·연계성을 위한 광역교통망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향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을 실시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예정지) 선정은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출발점인 만큼, 전문가 평가 결과에 나온 보안의견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미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울진, 2030년까지 4천억원 들여
죽변 후정리 일원 48만평 조성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지를 비롯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4개소를 지정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선정,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죽변 후정리 일원에 48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조성비는 약 4000억원이다.

울진 국가산단에는 국내 수소 관련 대기업을 비롯해 소부장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등이 집적하게 된다. 국가 혁신 수소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탄소중립 시대 핵심과제인 국가수소 산업을 울진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

지역경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조 1천억원, 고용유발효과 24050명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울진(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경남도, 50세 이상 신중년 창업멘토링

초기 사업비 500만 원도 지급

경남도는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는 만 50세 이상 신중년 창업 예정자에게 창업 교육 및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신중년 일 경험 창업멘토링 사업’을 시행한다.

프로그램은 창업전문교육을 시작으로 창업분야 현장 실습(인턴십) 진행, 창업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 창업 선배와의 멘토링, 창업아이템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까지 창업을 완료한 우수 참여자 10명에게는 초기 사업비와 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인턴십을 2개월간 진행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고충과 실무 경험을 배울 수 있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 기대된다.

참여 대상은 창업을 준비 중인 만 50세 이상 도민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이다.

신중년 창업멘토링 참여 신청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 중인 경상남도 신중년 일자리 전담 기관 ‘경남행복내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4월 중순에 20명을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중년 일경험 창업멘토링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신중년에게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인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강우량 목표 기준 5~10.3% 상향

면적비 가중치·강우증가율 등 반영

부산시가 홍수나 호우 등으로부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에서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인 ‘방재성능목표’ 기준을 재설정한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방재성능목표를 8.5~10.3% 상향 설정해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방재시설 설계기준과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며, 5년 단위로 검토 후 재설정된다.

방재성능목표 상향은 도시지역의 강우처리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새롭게 산출된 방재성능목표는 1시간 이내 114mm(기존 105mm), 2시간 이내 160mm(기존 145mm), 3시간 이내 190mm(기존 175mm)다.

앞서 시는 부산 지역 12개 강우관측소에서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면적비 가중치와 강우증가율·기후변화 할증률 등을 반영해 목표 강우량을 설정했다.

이번 방재성능목표 상향 설정 이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우수저류 시설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등의 방재사업이 추진되면 도시지역의 시간당 및 연속강우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봉화언덕빵’ 지역 브랜드 총력

순천시가 ‘봉화언덕빵’의 보급을 위해 지역 제과점에 빵틀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업장이 순천시 소재 제과제빵 취급 업체 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신규 청년 사업자의 경우 운영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봉화언덕빵’빵틀 지원 사업에 신청한 업체는 빵 레시피 및 제조·판매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를 확인한 후 빵틀을 보급할 계획이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 개장

전남 무안군이 오는 17일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을 개장한다. 숲은 125ha 부지에 국비를 포함하여 80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치유센터와 치유 숲길, 치유정원 등이 조성됐다.

치유의 숲 내에 건립된 산림치유센터에는 건강 측정실, 심신 이완실, 다목적 치유실 등이 마련돼 탐방객들의 휴식과 건강 회복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치유의 숲에서는 ‘숲 in 공감’, ‘숲 in 만남’, ‘숲 in 여류’ 등 7종의 나이별 특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장식과 함께 진행되는 식목일 행사는 물맞이 치유의 숲 개장식을 기념하여 참여자 모두 기념식수를 하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사하구

서부산의료원 건립 협력 협약

부산시는 사하구와 서부산의료원의 조기 건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부산의료원의 차질 없는 조속한 건립을 위해 두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협력이 시와 사하구 간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입 매각 협상 지연 등으로 서부산의료원 착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찬 기자 metrobusan3@

영덕군

봄기운 가득 ‘옥계 미나리’ 출하

봄기운을 담은 향긋한 영덕 옥계 미나리가 출하를 앞두고 있다.

영덕 옥계 미나리 재배단지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시범 재배를 마쳐 지난 1일 첫 정식 수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 현재 수확되는 옥계미나리는 봄 재배 작형으로 2140제곱미터, 7동 규모의 내 재해형 시설하우스에서 작년 9월경 파종해 올해 4월 중순까지 수확하게 되며 예상 생산량은 2톤으로 예상된다.

미나리는 특유의 해독작용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음식으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이자드립니다”

연 최대 200만원, 최장 4년간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맞춤형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대출이자율 연 최대 200만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85명을 포함한 총 450여 명이다.

신규 대상자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